

현대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감성디자인 연구*1

-2005, 2006 밀라노국제가구박람회를 중심으로-

이현정*2

A Study on the Emotion Design appeared in Modern Furniture Design*1

-Focused on the analysis of Salone del Mobile 2005, 2006-

Hyun-Jung Lee*2

ABSTRACT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oday in design genre is the comprehensive desig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rational and logical designs of functionalism that has had influences in entire 20th century and encompasses even the emotional aspect of humans. The emotional design factors in furniture designs will b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their effects and values on the consumers of present times.

The emotional uses of the patterns with the motive of nature expressing papers, flowers, wood textures, natural phenomena etc as they are and the colors with the vivid feeling of primary colors represent more dynamic and cheerful life style and the designs are characterized by the warm primary colors that give the feeling that the natur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designs as it is.

Diverse materials such as leather, fur, fabric and the materials with soft and flexible feeling such as silicone material have been used more widely and they are used as the materials expressing freedom not being formalized.

The designs that can produce diverse spaces desired by users by gathering unit modules can be said to be the outcome of the emotional designs combined with the needs of modern peoples that aspire their own designs.

Keywords: Emotion Design, modern Furniture

*1. 논문접수 : 2006. 12. 26.

*2.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Dept. of Environmental Art&design Namseoul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목적

오늘날 디자인 장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20세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 기능주의(Functionalism) 디자인의 이성적 논리적 디자인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Needs)가 단순 소유, 실용의 목적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디자인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가구디자인에서 감성디자인적 요소를 분석하여 감성디자인의 중요성과 현대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2005, 2006년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Salone del Mobile 2005, 2006)에 출품된 가구디자인 트렌드(trend)를 분석하여 현대 가구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함과 동시에 트렌드에 상징화된 감성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여 현대인들의 감성과 가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감성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성'에는 인간공학(ergonomics), 인본주의(Universalism), 자연주의(Naturalism) 등 모든 디자인의 중심에 '사람'이 자리한다.

우리의 신체와 가장 가까운 가구는 주거문화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전체 디자인 제품에까지 그 흐름이 파급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가구시장 중 전 세계의 디자인 경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를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1961년 개최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세계적인 가구 박람회인 밀라노 가구 박람회는 밀라노 주변 외곽도시에 위치한 the new Rho-Pero exhibition complex에서 개최되는데, 이탈리아의 대표적 건축가인 막시밀리아노 폭사스(Massimiliano Fuksas)가 디자인한 전시장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2500여 개가 넘는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다. 다양한 디자인의 패션과 가구는 물론, 자동차와 패션, IT제품과 럭셔리 디자인의 만남 등 영역을 파괴하는 다각적 디자인 제휴를 통해 더욱 파워풀한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2년간 밀라노 가구 박람회의 디자인 경향(trend) 분석을 통해 현대 가구디자인에 담긴 감성디자인 요소와 현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가치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인 시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감성디자인과 감성공학

2-1 감성디자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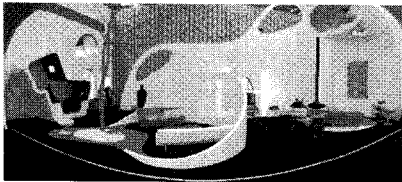
사전적 의미의 감성이라 함은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외부의 물리적 자극 즉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온각, 냉각 등의 비 인지적 내적 상태인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 감성은 편리함을 느끼는 기능적 감성과 색채나 형태에서 느끼는 감각적 감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가치기준 등의 반응을 표현하는 문화적 감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감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학문으로 발달시킨 것이 감성공학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감성의 구체적인 물리적 디자인의 요소로 전환해 설계하는 공학적 기법으로 인간이 가진 정서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자료화 하는 연구인 것이다. 즉, 감성디자인을 이용자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개념의 중심에서 '감성'을 위치시키고 디자인의 목표나 평가를 경제 원리의 가치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중심의 생태학적 가치척도의 범주에서 해석하였다¹⁾.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그 자체가 기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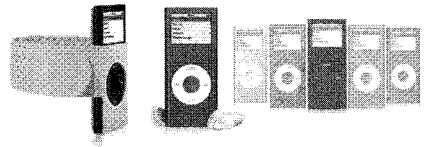
이러한 견해를 근거로 감성디자인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련의 물리적 실용 가치 척도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감성을 중심으로 환경 또는 대상의 기호적, 상징적 의미를 포함시키는 디자인의 유형으로서 귀납적 형식을 띤 생태학적 접근방식이라 하겠다.

2-2 감성공학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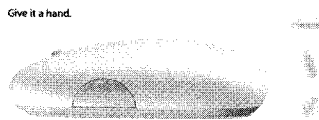
감성제품은 과거에 새로운 기술을 내 세우던 하이테크(High-Tech) 제품이나, 디자인을 강조한 하이터치(High-Touch)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과 디자인에 사용자의 문화와 미적감각을 반영시켜 진정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하이컬처(High-Culture) 제품이라고 제안된다.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여러 감각매체(Multi Media)와 감성의 활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감각과 감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Interface)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멀티미디어 제품은 단순히 전자통신 제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구, 자동차, 생활용품, 의류, 주택, 환경제품 등과 같이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미래지향의 멀티미디어 기술과 하이컬처 제품의 개발을 위한 첫 단계가 감성과학이며 감성공학이다.



<Fig. 1> Idea house-karim rashid²⁾



<Fig. 2> iMAC-Apple wireless Mighty Mouse.



<Fig. 3> iMAC-ipod nano.

1) Space design, 2001, Kwan young geul, Kook-je, p287

2) This house has the floor with wires connected with each other like a cobweb enabling the movements of data and the perception by tele-audio-sensors. Such systems are connected to furnitures and walls too making all spaces in the house 'alive'. This house will become the place where indoor lightings, humidity and fragrance can be controlled by a word or thinking of the resident. The state where all functions and devices in the house are to be operated by the touches and voice of the resident and the best environments are automatically produced considering the mood or state of the resident is the very feature of the 'ideal house'.

3. 현대가구디자인의 경향(Trend)

3-1 Mix & M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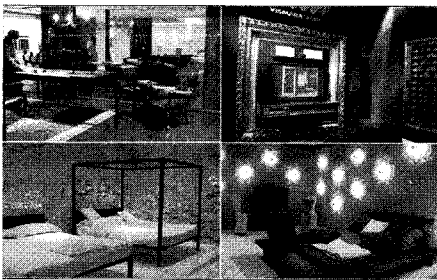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은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한다. Mix & Match는 오래전부터 선보여진 중요한 트렌드로서 가죽,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금속의 경우 금속 자체가 가진 차가운 느낌이 아닌 도색으로 다양한 색상을 가구에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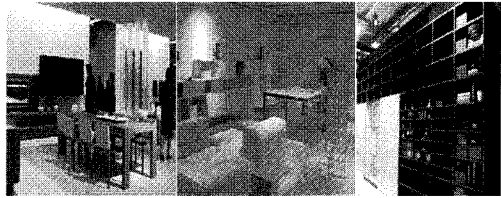
자연 소재인 나무와 하이그로시(high-glossy)의 조합, 나무와 금속의 조화, 가죽과 섬유(fabric)의 조화 등의 소재의 조화는 장롱, 주방가구, 작은 선반, 테이블 등 다각적으로 응용되며 또한 이런 색다른 소재와의 결합과 디자인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업홀스터리(upholstery) 가구는 명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패브릭의 소재에서 에스닉(ethnic)하고 로맨틱(romantic)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팝아트와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듯한 패브릭의 다양한 패턴은 다채로움을 선사하며 자유롭게 선택되는 이질적인 소재는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한다.

동서양의 적합한 조화는 소재의 혼합과 함께 동양의 수공예적 장식성과 문화의 혼합으로 풍부한 감성으로 디자인에 적용된다.



<Fig. 4> Mix & Match.



<Fig. 5> Naturalism & Extreme Minimalism.

3-2 Naturalism & Extreme Minimalism

밀라노 박람회에 출품된 가구들은 목제품이 대세를 이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나무 소재의 사용 확대는 수종의 다양함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variety wood'는 밀라노 전시회가 보여준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오크, 티크, 웬지, 지브라, 흑단 등으로 제작된 가구들은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 내추럴하면서도 풍부한 질감과 성숙된 정제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원목 질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가공 없이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내추럴 무늬를 그대로 살린 원목 가구는 공간에 감성적인 느낌을 불어넣으며 자연의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강조한 디자인 외에도 가공을 통해 색다른 이미지를 주기도 하

였으며, 고유의 나뭇결을 살려 서로 다른 수종과 매치시키는 등 디자인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다각도에서 이뤄졌다.

이처럼 다양한 수종들은 침대, 의자, 테이블, 수납장 등 가구의 모든 아이템에서 사용된다.

디자인은 최소한 간결하면서 기능성은 다양해진 가구는 공간 활용도를 고려하고 인체공학적으로 발달 되었으며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멀티기능, 유연성, 가변성은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디자인의 형태를 보면, 기존의 미니멀리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전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에서 더 나아가 초 미니멀리즘(extreme minimalism)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주의의 지속성은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과 친근한 감성의 욕구(Needs)를 만족시키는 결과이다.

3-3 Modern Vintage-Ethnic

동양적인 이미지는 유럽인들의 디자인 영감에 색다른 모티브로써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 동양과 이국적 감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모던 디자인을 보여준다.

에스닉(ethnic)과 패브릭의 만남, 업홀스터리(upholstery)가구와 원색(vivid)의 만남, 패브릭 가구의 빈티지(vintage)한 연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양적인 분위기와 모던한 느낌의 가구가 조화를 이루고, 촌스러울 수 있는 색상을 다양한 패턴과 어우러지게 해 세련된 느낌의 에스닉(ethnic) 분위기, 오래된 듯 낡아 있으면서도 절제된 분위기의 빈티지(vintage)로 표현됐다.

다양하고 독특한 패브릭(fabric), 재료, 패턴(pattern)을 사용하여 부분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고, 다른 형태(style)에서 나온 요소들의 복합적인 조합을 통해 서로 다른 질감(texture), 장식미(decoration) 그리고 감성적인 색채의 극적인 배치를 보여준다.

과거의 발견과 다양한 문화의 조화는 개인의 다양해진 욕구(Needs)와 개인적인 역사, 가치있는 삶의 추구하고 연결됨을 알 수 있다.



<Fig. 6> Modern Vintage-Eth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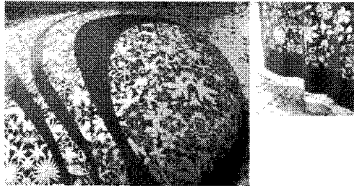
4. 가구디자인에 나타난 감성디자인

4-1 패턴(Pattern)+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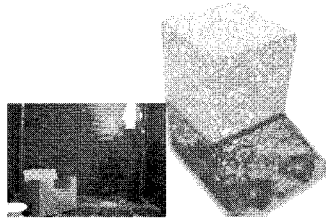
자연을 모티브로 한 패턴으로 자연 영상물을 보는 듯하다. 종이, 꽃, 나뭇결, 자연현상 등을 그

대로 살린 사실적인 패턴들을 사용한다. 특히 가위로 오려낸 듯한 디테일은 섬세함과 세련된 감각(Sense)과 감성(emotion)을 보여준다<Fig. 7>.

<fig 8>도 식물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환경을 규정한다는 디자이너의 컨셉³⁾을 잘 반영하고 있다.



<Fig. 7> Tord collection (moro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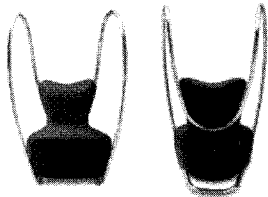


<Fig. 8> Mo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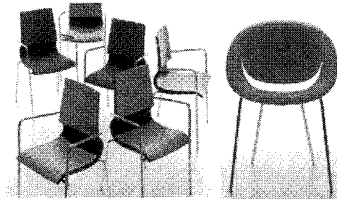
4-2 색채(color)+Design

빨강(red), 노랑(yellow), 주황(orange), 초록(green), 파랑(blue)등 화려하고 원색적인 칼라의 화려함이 나타난다. 원색의 선명한(vivid) 느낌의 색채들은 더욱 생동감 있게, 활력있고, 경쾌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따뜻한 원색이 특징이다.

<fig 9>는 금속의 유연하고 우아한 손잡이와 여성스러운 조형미가 원색과 조화를 이루고, <fig 10>은 인간공학적 디자인과 외향적이고 해학적인 형태미가 원색으로 더욱 경쾌하게 표현되고 있다.



<Fig. 9> Sexy chair (adrenal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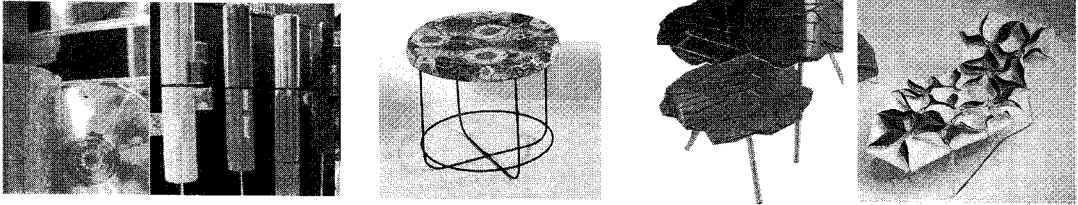
<Fig. 10> Ricciolina, so happy (max design).

4-3 재료(Material)+Design

제품의 균을 넘나들며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의 탐구가 보인다. 가죽, 털,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 특히 실리콘(silicone) 소재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소재들이 확대되었고, 정형화 되지 않고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무, 종이, 패브릭, 펠트와 같은 자연소재와 내추럴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폴리에스터 소재들도 등장했다<Fig. 12>.

또한 기존에 흔히 사용됐던 소재라도 그 가공 방식이 매우 다채로워 새로움을 주고 있다<Fig. 13,14>.

3) Inspired by plants, Niels van eijk & Miriam van de rub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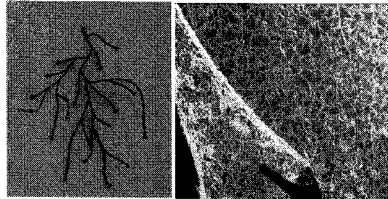
<Fig. 11> Magherita(bart design). <Fig. 12> Raw(moroso). <Fig13>Brasilia(edra).<Fig 14> Antibody(moroso).

4-4 모듈(Module)+Design

모듈(Module)로 된 제품군으로 한 개의 모듈이 모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의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자신만의 디자인을 열망하는 현대인들의 욕구(Needs)가 결합된 감성디자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Fig. 15>의 Algues는 로낭 & 에르완(Ronan&Erwan)의 디자인으로 식물의 형태를 본뜬 연성 플라스틱 유니트(Unit)로 사용자에게 의해 변형 및 확장이 가능하며 칸막이나 벽의 기능이지만 바람과 빛이 통과하는 친환경적 공간 표현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Fig. 15> Algues(vitra).

5. 결론

현대 가구디자인 트렌드를 Mix & Match, Naturalism, Extreme Minimalism의 세 경향으로 크게 분류하였지만 현대 디자인은 각각의 스타일들이 교류하고 만나서 교배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한 디자인 트렌드가 여전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절충주의를 넘어서 ‘기능과 형태’의 융합, ‘기능과 기능’, ‘형태와 형태’ 등 모든 가능한 만남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재료의 발견, 멀티플(multiple)한 기능과 새로운 감성을 견드리는 감성디자인만이 소비자에게 가치를 얻게 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유기성과 인간의 생체리듬과 감성, 영혼을 조율하는 공간, 가구디자인을 의미한다.

얼마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YOU’를 정하며 그 이유를 개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들었다. 즉 미래의 디자인은 개인의 인디비주얼리즘(Individualism)이 중요한 키워드이다. 개인주의,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즉 가구디자인에서의 공간에 적용되던 개념이 공간과 인간의 관계-감성디자인 요소, 가구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6. 참고문헌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도서출판국제
김미지자, 1998, 감성공학, 디자인오피스
임현숙, 2004, 김성디자인이 현대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디자인학회지
가구가이드 2005. 5월, 6월, 2006. 5월, 6월
가구저널 2005. 5월, 6월
www.moi.com
www.kartell.it
www.cassina.com
www.edra.com
www.morosoi
www.designdb.com
www.vitra.com
www.gaguguide.co.kr

학회비 안내

본 학회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연회비를 아래 주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학회 연회비 안내

회 장	100,000 만원/년
부회장 / 도서관 회원 / 기업회원	50,000 만원/년
상임이사 / 일반이사	30,000 만원/년
정 회 원	10,000 만원/년
입 회 비	10,000 만원/년
입금계좌 : 032901-04-061537 (국민은행)	
예 금 주 : 최병훈 (한국가구학회)	